

## 蠶絲學의 개척자 金文浹 박사

대담 / 李光榮 (과학평론가)

# “전문화시대, 이력서가 간단한 사람돼야”

우리나라 잠사학(蠶絲學)분야의 개척자로 평생을 누에(蠶)와 뽕나무(桑)연구에 바쳐온 소계(小溪) 김문협(金文浹)박사는 요즘도 평소와 같이 아침 6시에 일어나 성경을 본 후 간단한 도수체조와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김박사는 요즘 수상록(隨想錄)집필에 여념이 없다. 2백자 원고지 1천5백여매의 분량이 될 그의 수상록은 거의 마무리가 돼 오는 가을 출간될 예정이다. 올해 81세인 김박사는 팔순이 넘은 나이답지 않게 학술원 회원(82년 ~ 현재)과 서울대 명예교수·국제기드온협회 등 각종 학술과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선생님이 태어나 자라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어떤 가정, 어떤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요.

### 고향 蠶峰이름, 전공과 유관

1916년 2월 17일 평북 철산(鐵山)군 참(站)면 잠봉(蠶峰)동에서 4남2녀중

장남으로 출생했지요.

잠봉동은 잠두리라고도 했는데 마을 입구의 언덕이 누에형상을 했다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누에와 연관된 잠사학분야에서 평생 몸담게 된 것은 우연(偶然)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金龍揖)

모(李씨)님은 소작농(小作農)으로 어렵게 저희들을 기르셨지요. 다섯살 때 외가댁이 있는 용천(龍川)으로 이사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처지여서 당시 학교 가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요.

둘째 외숙이 용천의 동상(東上)공립 보통학교 훈도로 계셨습니다. 외숙은 우리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장남인 나에게 수업료를 대주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동상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할 무렵 작은 아버지께서 일본 동경철도학교를 나와 그 곳에서 직장을 잡으셨지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에게 보내져 5년 과정의 동경 금성(錦城)중학에 이어 3년과정의 동경고등잠사학교 재상(栽桑)학과를 졸업(38년)했습니다.

동경고등잠사학교를 가게된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삼촌집에 기숙을 해야했기 때문에 동경을 떠날 수 없었고 졸업 후 곧 취직할 곳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동경고등잠사학교는 관립이어서 학비가 싼데다 졸업 후 취직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동경고등잠사학교에서 졸업 1등을 해서 특대생 대우를 받으며 수석으로 졸업을 했지요. 해방후 청주고교 교장을 지낸 김준근(金駿根)씨가 양잠(養蠶)학과에 있었어요.

■ 첫 직장이 수원(水原) 농사시험장이시지요.

졸업무렵 담당 교수가 불러서 갔더니 일본 사이다마젠(縣)시험장에서 지명채용하겠다고 가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3년을 졸업 수석을 했으니 좋은 곳으로 취직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의외의 말에 크게 실망했지요.

나는 지방엔 가지 않겠

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희망지를 말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일본 농림성 잠사시험장이면 가겠다고 했지요.

### 日 유학후 수원시험장 취업

이 곳이 안된다면 고향 가까이 있는 수원농사시험장으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집에 가 있으니 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938년 수원농사시험장 잠사부 고원(雇員)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강원도 원잠종(原蠶種)제조소 산업기수(技手)로 발령받아 3년간 춘천(春川)에서 근무하며 누에품종 비교와 전공인 뽕나무 재배에 관한 시험을 했습니다.

이 무렵 지금의 아내(張三感)와 중매 결혼(40년)했습니다. 강원도 원잠종제조소 소장은 일본 사람이었는데 조선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갖고 눈에 떨 정도로 차별대우를 하더군요.

그래서 사표(43년)를 내던지고 함남 영흥(永興)공립농업학교에서 선생(敎諭)을 하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이 되어 일본 선생들이 몰려난 후 영흥공립농업학교 교장대리를 맡아 보고 있는데 군인민위위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책임자를 보낼테니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도와 상의한 후 이를 거절했지요. 그랬더니 일정시대 때 일본과 협력한 사람이라며 잡아 가두었습니다. 10일간 감옥에 있다 나오니 새로운 교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46년 2월 24일 두 동서와 함께 서둘러 3·8선을 넘어 월남한 후 곧바로 수원으로 갔습니다. 수원으로 가게된 것은 수원에 있는 농사시험장이 나의 공직생활을 시작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수원에 와 보니 잘 아는 계응상(桂應詳)박사가 중앙농업시험장으로 있었습니다. 계박사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개를 찾고 있었다면서 중앙농업시험장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6년 3월부터 국립농업시험장 잠사부 재상(栽桑)계장(技士)으로 대학 시절 전공분야였던 뽕나무 재배와 관련된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지요.

일 자리를 얻게 되자 둘째 동서가 서둘러 북에 가서 올라가 아내와 다섯살난 큰 아들을 안내해서 남으로 내려와 그해 8월에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 서울대 농대와는 언제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요.

시험장은 농과대학과 이웃해 있어서 왕래가 잦았어요.



▲ 근래에는 인도, 튀니지아, 태국, 이란 등지로 잠업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다는 김박사(左)는 지난 해엔 세계적인 잠업관련 기업인 태국의 출타이 실크회사에서 간부직원 재훈련교육을 하고 오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당시 서울대 농과대학에는 잠사학에 관한 강좌가 있었지만 전임교수가 없어 시험장 직원이 나가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46년 9월 학기부터 시간 강사로 양잠학(養蠶學)강의를 맡으며 서울대 농대와 인연을 맺게된 것입니다.

6.25가 터지기 1년 전부터 중앙농업기술원 잠사과 기좌(技佐)로 재상계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으로부터 누에 새 품종을 들여와 씨받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직장을 사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새 품종 누에를 씨받이해서 농촌에 보급해야 할 큰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돈도 한푼 없어서 피난은 생각하지 못했지요.

어떻든 북한 치하에서도 우리는 누에 새 품종의 씨받이에 성공해서 수북 후 농촌에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1.4 후퇴 때는 서둘러 대구로 피난갔지요.

■ 농림부에서도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림부거처 서울대 교수로

1954년 10월, 갑자기 농림부 농정국 잠업과 견사(繭絲)계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뽕나무 신품종 육성에 거의 성공단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유임운동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김원태(金元泰)차관이 불러 “많은 사람들이 중앙부서로 진출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함께 일할 것을 권했지요.

나는 “일생을 뽕나무 육종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행정은 모를 뿐 아니라 하기도 싫다”고 버텼지요. 중앙농업기

술원에서 뽕나무에 관한 분야를 담당할 마땅할 사람이 없어 유임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령이 난 것이니 취소는 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겸직발령을 내 주었습니다.

그개서 일주일을 들로 쪼개 2일은 수원에서 연구를, 4일은 서울에서 농림부의 행정을 보는 일이 수월치 않았지요. 그러든차 서울대 농대에 잠사학과 설치계획에 따라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후 우리나라에는 잠사학에 관한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래서 대학과정의 잠사학과 설치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농대학장은 조백현(趙伯顯)박사였습니다.

조박사는 농대에 잠사학과를 설치키로 방침을 세우고 이 일을 대한잠사회 홍재근(洪在根)회장과 중앙농업기술원 잠사과(지금의 잠업시험장) 박병희(朴炳禧)과장 그리고 나에게 맡겼습니다. 조박사는 잠사학과의 인가를 전제로 54년 농학과 안에 잠학전공 학생 13명을 뽑았지요.

나는 이것이 인연이 되어 55년 8월 서울대 농대 잠사학과 대우부교수로 자리를 옮겨 다음해 3월 잠사학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잠사학과의 정식 인가가 난 것은 56년 7월의 일입니다.

■ 서울대 농대 잠사학과를 만드신 셈이신데 초기에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교수진을 확보하는 일이었지요.

당시만 해도 잠사학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무척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상수(桑樹)보호학에 전대략(奎大

略), 가잠해부·생리학에 김낙정(金洛禎), 제사(製絲)학에 최병희(崔炳熙) 씨를 교수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은 미 국제협력처(ICA) 자금으로 두차례에 걸쳐 미네소타대학을 통해 시설을 지원받았는데 잠사학과가 정식 인가될 무렵 이 계획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추가 계획이 있어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웃에 있는 잠업시험장을 이용하라는 답변이었어요. 아무튼 서울대 농대 잠업학과는 어렵게 출범했지만 후에 우리나라 잠업분야의 고급인력을 배출한 산실(産室)이 되었지요.

특히 1962년부터 국가잠업증상계획이 마련돼 이 분야의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서울대 농대 잠사학과 출신들이 대부분 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당시 잠사학과 출신들은 졸업후 취직이 보장되어 있어 인기가 있었습니다.

1958년 3월 11명의 첫 졸업생을 냈는데 내가 정년을 맞은 81년까지 24회에 걸쳐 약 5백명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1회 졸업생 가운데는 권영하(權寧夏·잠업시험장장 등 역임), 유근섭(柳根燮·경북대 교수), 최진협(崔震浹·동아대 교수), 박승무(朴勝武·상주산업대 교수) 등이 있지요. 초기 2~5회 졸업생으로 최연홍(崔然泓·잠사회장), 김한수(金漢洙·농림정보센터사장), 남중희(南重熙·서울대 농대 교수), 이인전(李仁詮·경북대 교수), 손해룡(孫海龍·경북대 교수), 문재유(文在裕·서울대 교수), 강석권(姜錫權·서울대 교수), 정도섭(鄭堵燮·밀양산업대 총장), 송기언(宋基彦·잠업

시험장 역임), 이상풍(李相豊·잠업시험장 역임), 임수호(林秀浩·잠사곤충연구소장 역임), 임종성(林鍾聲·경북대 교수) 등 다수가 아직도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 농대 교무과장을 장기간 하신 것으로 압니다.

### 농대 교무과장 9년 큰 보람

4.19혁명은 대학사회에도 민주화 바람을 몰아왔습니다. 당시 교무과장은 학사(學事)와 교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교수사회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교수회에서 논란이 되어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던 종전의 제도를 교수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꿀 것을 결정했어요.

그 결과 뜻밖에도 내가 당선되어 본의아니게 교무과장(60년 6월)이 되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학교로 옮겨온 지도 얼마되지 않아 투표에서 내가 교무과장에 당선되리라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사양을 했지만 투표결과이니 말쑥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농대 교무과장이 되었습니다. 5.16후 선출제가 없어져 아직껏 유일한 서울대의 교수직선 교무과장이란 기록을 갖고 있지요. 교무과장을 얼떨결에 맡긴 했어도 이왕 맡았으니 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교무과장을 맡아 두가지 일에 특히 힘을 쏟았습니다. 첫번째는 교과과정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교과목은 과목과 강의시간에 따른 학점수가 들쭉날쭉 제멋대로였습니다.

심한 경우 8시간 실습을 0.5학점밖

에 인정하지 않는 학과도 있었으니까요. 학과에 따라서는 과목을 너무 세분화하여 학부와 대학원을 합친 것 같은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교과과정이 사람위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본부 교무처에 건의를 해서 강의는 1시간, 실습은 2시간을 기준으로 각 1학점씩 주도록 하는 원칙이 마련되었지요. 이 안은 농대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산하 전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두번째는 입학시험을 사고없이 철저히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서울대 입학시험은 학과별 모집에 1, 2지망이 허용돼 있었는데 농대의 경우 같은 계열 실업고교 출신자에 대해서는 특별 전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참작하여 착오 없이 입학사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특히 농대는 수원에 있어 시험지를 당일 새벽 4시에 올라가 서울의 본부에서 인수해다 시험을 치뤄야 했기 때문에 일이 무척 번잡스럽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경을 몹시 써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2년 임기의 교무과장직을 5기에 걸쳐 9년간 일을 맡아보게 되었는데 동료 교수와 직원들의 협조로 임기중 입시문제로 해서 말썽이 일어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 『뽕나무 가꾸기』 등 훗날 19권

“목표를 세웠으면 같은 방향으로 가라. 이력서가 간단한 사람이 돼라.”는

것이 평소 학생들에게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전문화시대가 아닙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국가와 사회발전은 물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우리나라 잠사학 발전에 몸담아 온 김문협박사는 잠업이 요즘 흔적만 남아 있을 정도로 죽어 있는 현실에 대해 몹시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잠업기술이 인도와 튀니지아·태국·이란 등지로 보급되고 있는 것은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박사는 이들 나라에 잠업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요즘도 해외 나들이를 하고 있다. 지난 해엔 세계적인 잠업관련 기업으로 성장한 태국의 출타이 실크회사에 가서 20일간 간부직원 재훈련교육을 하고 돌아왔다.

김박사는 한국농학회에 속해 있던 잠사학분야를 분리하여 한국잠사학회를 창립(59년)하는데 주역을 담당했고 세차례에 걸친 서울대 농대 학장직무대리(61년 9월~62년 1월, 66년 8월~9월, 68년 12월), 한국잠사학회회장(66년~74년) 대한잠사회 이사(70년~92년), 동 고문(93년~현재) 등을 역임했으며 지금도 잠사학발전과 기술보급에 힘쓰고 있다.

상수(桑樹)의 내건성(耐乾性) 연구 등 46편의 연구논문과 뽕나무가꾸기 등 19권의 저서를 펴냈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김박사는 55년부터 수원 서둔교회 장로로 74년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한인 교회를 세우기도 했다. 꽃가꾸기가 취미인 김박사는 슬하에 3남2녀를 두고 있다. ⑤7